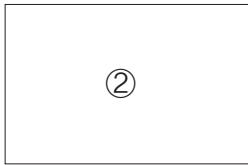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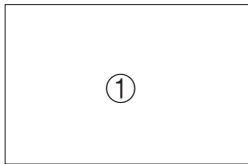




# 풍경 사진,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

글 이상엽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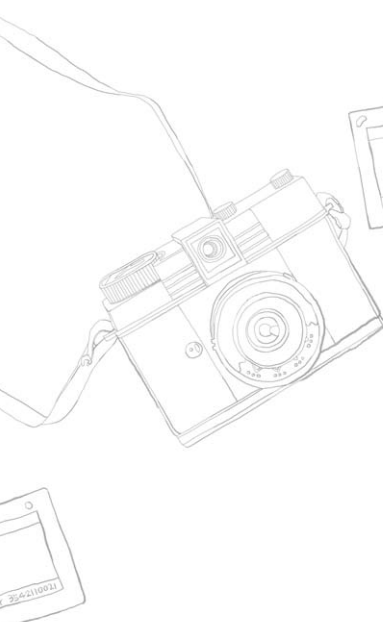


① 비무장지대 안. 강원도 철원 평야. 2009

② 4대강 공장 현장. 충청남도 공주 공산성 앞 금강. 2010

사실 난 풍경사진에 관심이 없었다. 다큐멘터리 사진 찍는 것을 업으로 삼은 지 19년이 넘었지만 풍경은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의 배경이 되어줄 뿐, 풍경 그 자체가 내 목적이 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호기롭게 무슬림반군을 찍기 위해 민다나오의 밀림을 헤치고 다닐 때도, 동티모르의 독립을 찍기 위해 UN의 쓰레기장을 배회할 때도, 수십만이 죽은 원환의 골짜기에서도 그저 풍경은 거기 있었을 뿐, 내가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질서를 프레임 안에 고정시키는 희열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어느새 풍경이 내게 왔다. 그것은 나이 먹음이나 인간에 대한 환멸 따위하고는 관계가 없다. 카메라 든 자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회의의 순간 때문이다.

### 풍 경 이 내 게 로 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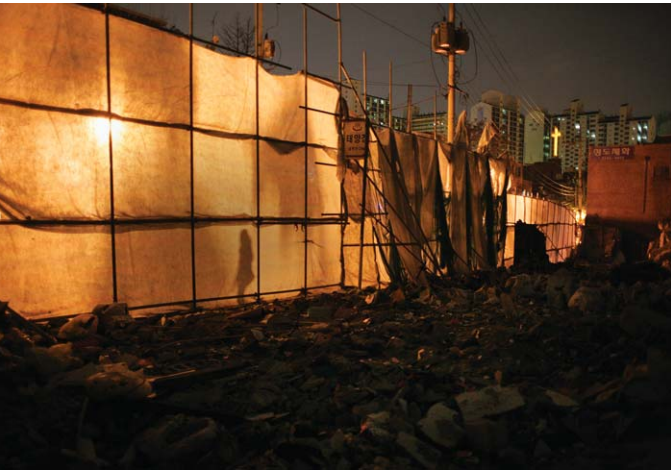
미술에 비해 얼마 되지 않은 역사(니엠프가 최초의 사진을 찍은 것은 1827년이다)를 지닌 사진은 두 개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기록물을 양산했다.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는 풍경이었다. 중세 이후 미술 분야에서도 가장 각광받던 초상화와 풍경화는 사진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 특히 풍경사진은 회화의 연장선에서 살롱사진의 중심이 되었고, '사진분리파 운동' 이후에는 순수 사진의 결정체가 되었다. 폴 스트랜드에서 에드워드 웨스턴 그리고 눈을 의심케 하는 자연 풍경의 절정이었던 안셀 아담스의 흑백 사진까지 풍경은 미술관에서 인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우리 걸을 장식해 왔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자연에 대한 해석만 있을 뿐 비평이 없었다. 어쩌면 순수자연에 대한 비평이라는 것은 인간 인식의 한계이자 불경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풍경은 진화했다. 리 프리들랜더의 도시풍경과 조엘 마이어로비츠의 인공구조물 풍경은 강력한 비평이 담긴 풍경사진으로 이해됐다. 그저 풍경 사진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50년대 이전의 사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멈춰있는 것이다.

요즘 나는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 직접적인 계기가 있다면 사진가 강운구선생의 전시 <저녁에>가 될 것 같다. 선생은 이미 월로인지라 당신이 인식하는 우리 땅은 농민의 땅이었다. 그것은 다시 돌아 올 것 같지 않은 빈티지에 대한 향수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다. 내가 인식하는 우리 땅은 찢기고 갈라지고 파헤쳐지는 고통 받는 땅이었다. 그 땅을 기록하러 돌아 다녔다. 서울 강북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업자들의 모래 채취로 사라져가는 이작도의 풀등을, 그리고 헐벗은 산과 인간의 과소비로 물이 말라가는 태백과 안동을 돌아 다녔다. 그곳에서 거대한

풍경을 봤다. 안동댐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그곳은 불모의 사막처럼 변했다. 멍하니 그 황당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멀리 신기루처럼 어른거리다가 폴짝폴짝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토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 거대한 풍경이 만든 착시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작지 않았다. 맹렬히 달리더니 말라버린 댐의 바닥을 지로질러 내 앞 100미터쯤에 멈췄다. 그리고는 뻥히 쳐다본다. 고라니였다. 물을 찾아 목숨을 걸고 인간 앞에 선 것이다. 나 역시 멍하니 고라니를 쳐다봤다. 그 사이 고라니는 물도 못 마시고 출렁랑을 쳤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이 거대한 풍경을 복사하기 바빴다. 하지만 천천히 갈라진 땅을 거닐며, 뒷전을 엉덩거리며 때리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느끼기 시작했다. 왜 땅이 이리도 참혹하게 변했는지. 그리고 의심했다. 인간에게 굴종을 강요받던 땅이 과연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인지? 그리고 들리기 시작했다. 울음이었다. 아니 비명에 가까웠다.

재개발 공사 현장, 서울 금호동, 2009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앞 안동댐은 1976년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했고, 수몰리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만수위 너머 새로 마을을 만들고 그곳에 정착했다. 그로부터 33년이 흘러 주민들은 이제 물 빠진 호수 바닥에서 자신들의 고향을 본다. 도로가 드러났고 가로수가 열 지어있다. 그리고 멀리 낙동강이 흐른다. 물속에 잠겨있던 강이 다시 흐른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이 모습은 땅의 풍경을 담은 내게 새로운 시각을 원한다. 무엇이 이 땅의 풍경인가? 한국관공공사가 그리도 아름답다며 사진 찍으러 가라 등 떠미는 풍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아 사라져가는 반(反) 풍경의 땅으로 갈 것인가?

### 안 동 댐 의 풍 경 이 준 충 격

이후 나의 주제가 땅에 집중된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기도 했다. 안동댐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내게 제안이 왔다. 비무장지대(DMZ)를 취재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전쟁 60년을 맞아 단행본 책을 내는 기획이었는데 원고료는 형편없지만 누구도 마음대로 들어가 찍을 수 없다는 매력이 있는 곳이었다. 국방부의 취재 협조 속에 사회학자 김호기교수 등과 DMZ와 민통선으로 들어갔다.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휴전선 155마일을 가야하는 이 기획은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사실 그곳이 함부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누군가 선택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 일일이 간섭을 받아가며 찍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곳에 특별한 것이 존재하리라 믿게 된

다. 하지만 그것은 곧 전쟁 후 59년 동안 방치된 황폐한 풍경일 뿐이라는 매우 사실적인 현실 앞에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도대체 이곳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어디쯤일까? 새벽녘 어스름 속 철조망 건너 흘러가는 물줄기도, 안개로 뒤덮인 울창한 숲과 드넓게 펼쳐진 논밭도 우리에게 ‘전쟁’과 ‘평화’ 사이에 어디쯤 위치했는지 말해주진 못했다. 긴장으로 채워진 일상의 반복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쉽게 포장되지만, 우리는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이어진 155마일의 철조망 사이에서 긴장이라는 새살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된다. 그래야 뭔가 찍을 것 아닌가?

나는 거대한 망원렌즈를 들고 분단의 풍경을 접수하러 다녔다. 하지만 병풍처럼 늘어선 산줄기의 아름다움도, 물안개가 피어오르던 깊은 계곡도, 고라니와 백로가 함께 물을 마시던 그 에텐동산도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가지 못해, 억지로 움켜쥐기라도 하듯 망원렌즈로 당겨보지만, 피사체는 커지지만 할 뿐 그 곳으로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한다. 결국 접수는커녕 우리는 계속되는 취재 속에 만나는 일상의 풍경에게 접수당해 식상하고 뻘해 보이는 사진 속으로 침전했다.

#### D M Z 에 서 발 견 한 풍 경 사 진 의 진 실

나는 그 곳에서 우리는 비현실적인 한국을 보려했을까? 누구도 본일 없는 특종을 원했을까? 그렇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풍경을 보지 못했다. 그저 우리 땅을 보았을 뿐이다. 게다가 아픈 땅이었다. 소외되고 버려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땅이었다. 하지만 이 뻘한 풍경에 가슴이 시렸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의 사람, 동물, 풀 한포기 마저도 의미 없는 것은 없었기에, 이것을 기록하고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어야 하는 사진가이기에 그랬다. 풍경 사진? 이 사진은 내가 그 풍경을 사랑하는 만큼만 족다. ☹

인동택의 고라니. 경상북도 안동, 2008

